



보도자료 Press Release

2015년 11월 16일

배포 후 바로 보도 가능합니다.

총 7장

담당: 홍보실 윤정욱 전문원

전화: 02-3701-7349

이메일: communications@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 서평회 18일 개최

『난학의 세계사 - 중화적 세계를 넘어 일본이 유럽과 열대에서 접속하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오는 18일(수) 오후 6시 30분 종로구 경희궁 1가길 소재 연구원에서 이종찬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의 저서 『난학의 세계사 - 중화적 세계를 넘어 일본이 유럽과 열대에서 접속하다』(알마, 2014)를 주제로 '제5회 아산서평모임'을 개최한다.

이번 모임에서는 정수복 작가의 사회로 이종찬 교수가 발제하며 보데원 알라빈 교수(성균관대), 원재연 교수(전주대)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이외에 신복룡 교수(건국대), 송상용 교수(한림대), 그리고 신문수 교수(서울대) 등이 서평위원으로 참여한다.

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좋은 책을 함께 읽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아산서평모임'을 격월로 개최하고 있다.

*행사 참석은 초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도서는 개별 구입하셔야 합니다.

*행사 취재 및 참석을 희망하는 언론인은 홍보실(communications@asaninst.org / 02-3701-7349)로 **17일(화) 오후 12시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1] 《제5회 아산서평모임》 행사개요

*[참고 자료2] 이종찬 교수 약력

*[참고 자료3] 『난학의 세계사 - 중화적 세계를 넘어 일본이 유럽과 열대에서 접속하다』 출판사 서평

*[참고 자료4] 주요 참석자 약력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함재봉, www.asaninst.org)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입니다. 한반도,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이고 공공의 복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돕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2008년 설립 이후 국내외 학술교류, 아산플래넘, 아산핵포럼과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China's Foreign Policy》, 《Japan in Crisis》, 《출구가 없다》, 《14호 수용소 탈출》, 《고아원 원장의 아들》 《선거연구 시리즈 1,2,3》 연구서적 출간 등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4년 펜실베이니아대 주관의 세계싱크탱크 랭킹 지역부문에서는 6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고 국제회의' 부문에도 국내 싱크탱크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제 5 회 아 산 서 평 모 임

『난학의 세계사 - 중화적 세계를 넘어 일본이 유럽과 열대에서 접속하다』

(이종찬, 알마, 2014)

일시: 2015년 11월 18일(수) 18:30 - 21:00

장소: 아산정책연구원 2층 회의실

주관: 아산정책연구원 한국학연구센터

| | | |
|-----------------|--------------|-----------------------|
| 18:30~19:00 | 저녁 식사 | |
| 19:00~19:05 | 인사말 | |
| |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 |
| 19:05~19:10 | 연사자 소개 | |
| |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 |
| 19:10~19:45 | 발제 및 지정토론 | |
| 발제 및 지정토론 | 사회자 | 정수복 |
| | 발제자 | "난학, 일본 노벨상의 계보학적 기원" |
| | | 이종찬, 아주대학교 |
| | 토론자 | "난학의 세계사와 세계화" |
| | | 보데원 알라변, 성균관대학교 |
| | | "『난학의 세계사』를 읽고" |
| 원재연, 전주대학교 | | |
| 19:45~20:00 | 휴식 | |
| 20:00~21:00 | 자유토론 | |

이종찬 교수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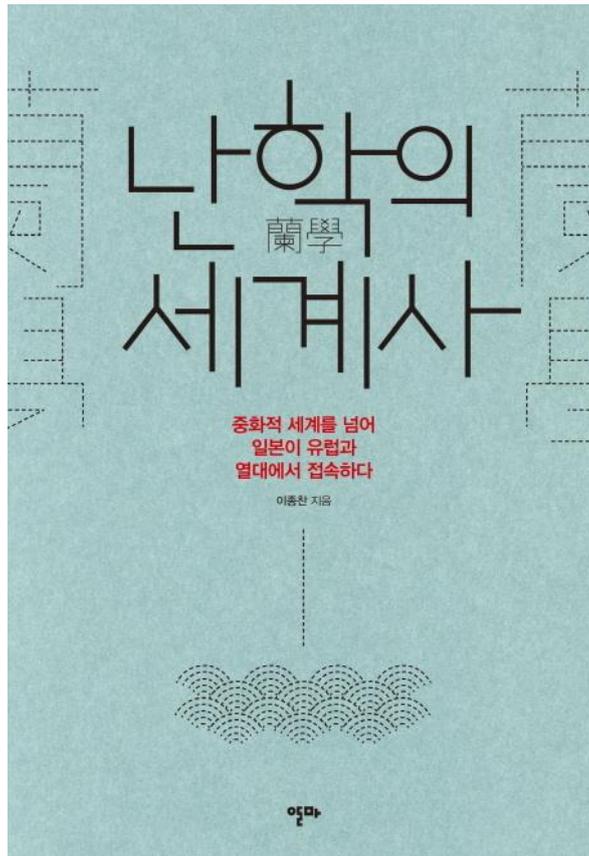


이종찬교수는 한국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열대학연구소(Institute of Tropical Studies)를 아주대학교에 설립했으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을 탐구하면서 열대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존스홉킨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학 과학사학과 및 옌칭연구소, 영국 캠브리지 니담Needham 동아시아과학사연구소 및 웰컴Wellcome 의학사 연구소 등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한국사회사학회장을 맡았다.

저서로는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난학의 세계사』(알마, 2014), 문화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 『파리식물원에서 데지마박물관까지』(해나무, 2009), 『열대와 서구: 에덴에서 제국으로』(새물결, 2009), 『의학의 세계사』(몸과마음, 2009), 『동아시아 의학의 전통과 근대』(문학과지성사, 2007) 등이, 번역서로는 『미국의료의 사회사』(폴 스타 지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전면개정 번역판, 2012), 『醫哲學의 개념과 이해』(헨릭 윌프 외 지음, 아르케, 전면개정 번역판, 2007)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Hygienic Governance and Military Hygiene in the Making of Imperial Japan, 1868-1919”와 “帝國의 콩고 식민지배와 조셉 콘라드의 熱帶性에 대한 인식: 문학의 역사사회학과 생물지리학의 융합적 지평” 등이 있다.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과 열대학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다.

『난학의 세계사 - 중화적 세계를 넘어 일본이 유럽과 열대에서 접속하다』



- 출판사 서평

서구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융합적 학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온 저자가 난학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평을 연다!

난학(蘭學)은 에도시대에 일본이 네덜란드로부터 받아들인 서양 학문이다. 이 난학이 근현대 일본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간 난학에 대한 연구는, 일본학이라는 지역학과 일본의 일방적인 서양 문물 수용이라는 서구중심주의적 시각이 주를 이루었다.

저자 이종찬은 이 책 <<난학의 세계사>>에서 그러한 지엽적이고 기계적인 해석으로는 난학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열대 동남아시아-유럽이라는 전 지구적 네트워크 속에서 난학을 인식해야 함을 검증해낸다. 이를 위해 저자는 일본이 실제로 유럽과 접속한 공간인 인도에서부터 동남아시아, 일본에까지 이르는 지역을 직접 답사·탐방하고, <<난학사시>>와 <<해체신서>>를 비롯한 난학의 고전들과 의학, 과학, 예술, 지리, 역사 등을 망라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섭렵한다. 이러한 융합적이고 실질적인 학문 연구를 통해 저자는 '난학의 세계사적 인식'이라는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펼쳐 보인다.

<<난학의 세계사>>는 <<난학사시>> 한국어 번역문>과 <열대의 일본, 중화적 세계를 넘어 유럽으로>라는 두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이 두 글을 자유로이 오가고 또 서로 긴밀히 연관시키면서 난학의 진정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규명해낸다.

근현대 일본의 이념적 토대가 된 난학(蘭學)의 생생한 태동 현장을 엿보다

저자가 엄밀한 고증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한 고전 <<난학사시>>에서 스기타 겐파쿠는 18세기 에도와 나가사키를 넘나들며 난학이 싹을 틔우고 꽃피는 과정을 흥미롭고 실감 나게 묘사한다. 자신이 주도한 <<해체신서>>의 번역·출간을 둘러싼 고투와 기쁨, 그리고 난학 발전에 헌신한 여러 학자들의 열정과 고민, 두려움과 놀라움, 갈등과 우정이 생생히 그려진다.

스기타 겐파쿠가 지방의 이름 없는 의사에서 난학의 선구자로 우뚝 서게 된 계기는 네덜란드어로 된 해부서를 접하면서였다. 겐파쿠는 거기에 실린 해부 그림이 중국 의학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에 그는 실제로 인체 해부 현장에 참관하여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서양 의학의 정확성과 우월함을 확인한 후, 뜻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4년에 걸쳐 <<타펠 아나토미아>>라는 해부서를 번역해 출간했다. 이 책이 바로 난학의 시작을 알린 <<해체신서>>였다.

난학자들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번역가였다. 애초에 겐파쿠를 비롯한 동료들은 일천한 네덜란드어 지식에다 사전도 없는 상황에서 번역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무모하고 지난한 번역 과정에서 그들은 중국식 한자어가 아니라 일본식 한자어를 새로이 창조해내기에 이르렀다. 이는 일본이 중국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증명한 행위인 동시에, 스스로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로써 일본은 기존의 중화적 세계를 넘어 전 지구적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난학자들은 사무라이 계급 출신이었다. 그런 점에서 <<난학사시>>에 등장하는 히라가 겐나이이라는 인물이 보여주는 상징성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에는 사무라이가 다이묘와 봉건적 유대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겐나이는 네덜란드 상관이 있던 나가사키의 데지마를 다녀온 후 과감히 그 관계를 끊고 박물학자가 되어 일본 전역을 돌아다녔다. 이처럼 난학자들은 봉건적 신분 관계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열린 생각과 태도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며, 이 사실은 일본이 근대화를 이루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일본, 중화적 질서를 넘어 전 지구적 네트워크 속으로 나아가다

난학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는 글인 <열대의 일본, 중화적 세계를 넘어 유럽으로>에서 우선 저자는, 왜 난학이 근현대 일본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는지를 규명한다.

<<난학사시>>는 메이지 시대에, 후쿠자와 유키치에 의해 재발견되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메이지 정부의 사상적 토대를 정립한 인물이다. 그는 <<난학사시>>에서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를 지향한다”라는 탈아입구(脫亞入歐)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정당성을 찾아냈다. <<난학사시>>는 중화적 사물의 질서와 결별하고 서구를 지향하려는 그의 ‘탈아론’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했다.

아울러 근대 일본은 군사적 전략과 지리학적 지식의 결합을 통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제국화로 나아갔는데, 이 힘은 바로 하야시 시헤이, 혼다 도시아키, 사토 노부히로와 같은 난학자들의 지리적 상상력에서 분출되었다. 그런 점에서 저자는, 도쿠가와 막부가 난학을 낳은 어머니라면, 메이지 시대는 난학을 키운 어머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난학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일본과 유럽이 열대 공간에서 접속하다

이어서 저자는 기존의 기계적 해석으로는 제대로 설명 불가능한 난학의 본질을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규명해낸다. 저자는 난학이 유럽-열대 동남아시아-일본을 연결하는 열대 무역과 열대 박물학에 의해 탄생했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설명한다. 그럼으로써 지역학과 서구중심주의를 넘어 세계사적 지평에서 난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식 체계를 펼쳐 보인다.

일본은 이미 16~17 세기에 주인선 제도를 통해 열대 동남아시아 각지에 일본인 거주지와 정착촌까지 두고 활발한 열대 무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여기에 네덜란드가 동인도회사를 세우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식민 지배를 시작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은 난학이 태동, 발달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아울러 전 세계로 표본 수집에 나섰던 식물학자 린네의 제자들의 발길이 열대 동남아시아를 거쳐 일본에까지 이룸으로써 열대 박물학 또한 일본과 유럽의 세계사적 지평에서의 만남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저자는, 난학이 단순히 일본과 네덜란드 사이의 문물 교류가 아니라, 열대 공간에서 전개된 일본과 유럽 사이의 문화적 접속이었음을 밝혀낸다.

주요 참석자 약력

발제자



이종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열대학연구소 소장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의사학 박사

【주요 저서】『파리식물원에서 데지마박물관까지』(해나무, 2009)

『열대와 서구: 에덴에서 제국으로』(새물결, 2009)

『의학의 세계사』(몸과마음, 2009)

토론자



보데윈 알라번 Boudewijn Walraven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석좌교수

네덜란드 레이던대학교 인류학 박사

【주요 저서】『보물섬은 어디에: 네덜란드 공문서를 통해 본
한국과의 교류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공저)

『 Culture and the State in Late Chosŏn Kore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공저)



원재연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문학박사

【주요 저서】『순교자의 삶과 신앙』(도서출판형제애, 2014)

『러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신인문사, 2011)

『이미 우리가 된 이방인들』(동녘, 2007)

사회자



정수복

사회학자/작가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EHESS 사회학 박사

【주요 저서】『책에 대해 던지는 7 가지 질문』(로도스, 2013)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생각의나무, 2012)

『파리를 생각한다』(문학과지성사, 2009)